

1970-90년대 독일의 터키 이주민 가족*

- 초국적 이주는 가족적 삶과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

정 용 숙**

- I. 머리말 - 이주연구 대상으로서의 가족
- II. '이민자 문제'와 이주민 가족
- III. 이질적 가족구조와 '타자'의 딱지
- IV. '터키 이주민 가족'은 존재하는가?
- V. 맺음말 - 신 프롤레타리아 가족?

• 국문초록

이 연구는 국제 노동 이주 배경을 가진 독일 가족을 다룬다. 이들은 1960년대 이후 독일연방공화국의 출산관행 변화에서 중요한 요소였다. 제6차 가족보고서(2000)는 독일이 사회적 문화적 관점에서 사실상 근대적 이민국이 되었음을 인정하였다. 이 보고서의 특별 관심 대상은 터키 출신 노동자 가족인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독특한 전통적 공동체적 삶을 중시하고 특수한 젠더 관계 및 종교적 지향성을 지니고 그것을 세대를 넘어 전수하는 특수한 집단으로 알려졌다. 이주민 가족에서 구성원들의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B5A07037135).

** 대구대학교 조교수

이주 순서는 특히 부부 간 권력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터키 여성들은 대부분 먼저 독일에 이주한 남성과 결혼을 통해 독일에 정착했고 적응문제를 겪었다. 이유는 그들의 전통적 터키식 가치관이나 부족한 독일어 능력에만 있지 않다. 이주민 가족의 거주 환경 특히 독일 사회와 거의 접촉이 없는 터키 이주민 주거지의 폐쇄성 때문이기도 했다. 터키 이주민 여성의 취업률은 대단히 낮았고, 그들의 역할은 대가족의 전업주부로 고정되었다. 이주민 후세대 여성들에게 주어진 직업 훈련 기회는 또래 독일 여성이나 터키 남성들에 비해 적었다. 이런 사정은 1990년대 초까지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근본적 불균형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 주제어

외국인 노동자, 이주, 가족, 여성, ‘대청사회’

I. 머리말

“다문화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¹⁾ 2010년 청년 기민련(Junge Union) 당 대회 연설에서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는 독일 정부의 다문화 정책의 성과를 가혹하게 평가했다. 바이에른 주지사 제호퍼(Horst Seehofer)는 “독일은 이민국이 아니”고 “전 세계의 사회복지사” 노릇을 떠맡을 수 없다며 특히 EU 밖으로부터의 노동이주를 엄격히 규제하라고 촉구했다.²⁾ 그러나 독일이 이민국이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005년 연방 통계청 표본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독일 내 거주자 약 8천2백47만 명 중 18.6%인 1천5백33만 명이 1945년 이후 독일로 이주해 왔거나 이주자인 부모 또는 조부모를 두었다.³⁾ 이들의 비중은 해마다 커져 2014년에는 20.3%(1천6백40만)로 전년 대비 3% 증가했고 그 중 독일 국적 보유자는 56%였다.⁴⁾ 1950년대까지도 비교적 단일인종 사회였던 독일연방공화국이 이제는 “독일컬러공화국”(Buntesrepublik Deutschland)이 되었다는 농담은 거주자 5명 중 1명이 ‘이주 배경을 가진 자’(Menschen mit Migrationshintergrund)라는 현실을 반영한다.⁵⁾

-
- 1) “Integration: Merkel erklärt Multikulti für gescheitert”, <Spiegel Online>, 2010년 10월 16일,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integration-merkel-erklaert-multikulti-fuer-gescheitert-a-723532.html>, 2015.07.20.)
 - 2) “Wir wollen nicht zum Welt-Sozialamt werden”, <Süddeutsche Zeitung>, 2010년 10월 16일,
(<http://www.sueddeutsche.de/politik/integrationsdebatte-seehofer-wir-wollen-nicht-zum-welt-sozialamt-werden-1.1012708>, 2015.07.20)
 - 3) Statistische Bundesamt, *Bevölkerung und Erwerbstätigkeit. Bevölkerung mit Migrationshintergrund – Ergebnisse der Mikrozensus 2005 (Fachserie 1 Reihe 2.2 Migration in Deutschland)*, Wiesbaden, 2009, p.38.
 - 4) Statistisches Bundesamt
(<https://www.destatis.de/DE/ZahlenFakten/GesellschaftStaat/Bevoelkerung/MigrationIntegrations/Migrationshintergrund/Migrationshintergrund.html>, 2015.8.6.)
 - 5) 국가의 공식 명칭인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 BDR)에서 Bund

자본과 노동시장의 경계가 무너져가는 세계화 시대에 다문화는 더 이상 도덕적 당위나 선택지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다. 독일 사회 이민의 역사가 반세기를 넘어서면서 이민 현상의 발전적 잠재력에 주목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들에 대한 독일 사회의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특히 터키계 이주민이 그 표적이었으니, 다른 이주민 집단에 비해 훨씬 더 독특한 전통적 공동체의 삶을 중시하고 특수한 젠더 관계 및 종교적 지향성을 지니며 그것을 세대를 넘어 전수하는 특수한 집단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제호퍼가 EU 밖으로부터의 이주를 제한하라고 촉구한 것은 사실상 이들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이들에게 붙는 ‘타자’의 딱지는 주로 출산 관행과 가족구조 등 가족적 삶의 이질성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터키 이주민 가족은 독일인들이나 다른 이주민에 비해 실제로 얼마나 이질적인가? 그 이질성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 글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고자 한다.

역사가 길지 않은 이주 연구에서 우선 천착했던 분야는 노동문제나 이주정책 등 법과 제도였다. 이 글은 ‘이주’를 ‘가족’과 연결시키려 한다. 국제이주는 가족생활의 급격한 변화를 동반하는 경험이다. 국경을 넘는 이주민들은 삶의 조건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며 새로운 터전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는 한 세대로 끝나지 않고 대를 이어 진행된다. 이주를 거치며 변화하는 가족구조와 가족적 삶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으며 개척 여지가 많다. 독일에서 이주민의 고유한 가족문화에 주목한 연구는 1990년대에 시작되었다. 메르켄스(Hans Merkens)와 나우크(Bernhard Nauck)가 독일학술재단(DFG)의 ‘노동이주가 교육에 미친 영향’(Folgen der Arbeitsmigration für Bildung und Erziehung) 프로젝트의 후원을 받아 수행한 <터키 이주민 가족의 세대 간 관계> 연구가 대표적이다. 터키 이주민에 집중된 이 연구는 405 가족을 대상으로

(‘연방’)를 발음이 비슷한 형용사 bunt(‘다채로운’)로 바꿔치기 한 말장난이다.

부모와 그 자녀들에 대한 인터뷰를 각각 수행하여 이주 경험이 가족 내에서 세대를 통해 어떻게 전승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이주민 가족 청소년들의 독일 사회 '동화'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탐구하였다.⁶⁾

독일 연방 가족부는 2000년에 내놓은 제6차 가족보고서의 주제로 '이주 배경을 가진 가족'을 채택하였다.⁷⁾ 이 보고서는 독일이 사회적·문화적 관점에서 사실상 근대적 의미의 이민국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한편, 거주자를 독일인과 외국인으로만 분류하는 방식으로는 이주배경을 가진 주민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⁸⁾ 연방통계청은 2005년 인구표본조사에서 '가족적 이주배경'이라는 새로운 분류 범주를 도입하여 독일 내 거주자 본인의 국적뿐만 아니라 부모 및 조부모의 출신에 대한 설문을 최초로 실시했다.⁹⁾ 그 전까지는 인구를 본인의 국적에 따라서만 분류했기 때문에 가족적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규모는 드러나지 않았다. 결혼이나 취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주한 후 독일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나 이주민 2세대나 3세대는 통계상 독일인으로만

-
- 6) 연구 결과는 Bernhard Nauck 외, "Familiäre Netzwerke, intergenerative Transmission und Assimilationsprozesse bei türkischen Migrantenfamilien", *Kölner Zeitschrift für Soziologie und Sozialpsychologie*, vol. 49, no. 3, 1997, pp.477-499에 실려 있다.
- 7) 지금까지 모두 8회에 걸쳐 나온 가족보고서의 주제들은 각각의 시대적 특성을 반영한다. 가령 통독 후 첫 보고서인 제5차 보고서(1995)의 주제는 '통일과 가족문제'이다. 제6차 보고서의 주제가 '이주민 가족'(2000)이며, 제7차 보고서(2007)는 포스트모던 시대 급변하는 '가족의 유연성', 그리고 제8차 보고서(2012)의 주제는 '가족정책'이다. 이 보고서의 주제들을 통해 각 시기마다 가족의 어떤 측면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지 알 수 있다.
- 8)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Familien ausländischer Herkunft in Deutschland. Sechster Familienbericht*, Berlin, 2000, p.4 참조. 그 영향으로 '이주배경'에 특화된 통계 자료는 2000년대 들어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 9) '이주 배경을 가진 자'의 통계적 범주 및 그 도입의 의의에 대해서는 Statistische Bundesamt, *Bevölkerung und Erwerbstätigkeit. Bevölkerung mit Migrationshintergrund - Ergebnisse der Mikrozensus 2005*, Wiesbaden, 2009, pp.325f 참조. 2005년의 표본조사 결과는 2006년 통계연감부터 반영되었고, 그 이전에 작성된 통계자료들 중 일부가 새로운 기준에 맞추어 재편집되기도 했다.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이 글은 독일의 이주민 가족 중에서도 터키 출신 노동자 가족을 다룬다. 독일 사회가 이들에게 붙이는 사회적 타자의 딱지는 ‘이질적 가족’이라는 고정된 이미지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느 만큼의 실재와 편견이 섞여 있을까? 터키 이주민 가족은 국경을 넘는 이주와 정착의 경험을 통해 변화를 거쳐 왔는가? 이것이 이 글의 핵심 질문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이주민 가족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노동이주가 가족이주로 전환되어 한 세대가 지나는 시기에 해당하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를 다룬다. 사료로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산하 노동부와 가족부, 통계청, 그리고 각종 연구 기관들이 내놓은 통계 자료와 정책 제안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 설문 조사 자료들을 활용한다.

II. ‘이민자 문제’와 이주민 가족

독일의 역사적 이민연구를 정립시킨 바데(Klaus J. Bade)에 의하면 독일이 이민국이 된 것은 이미 1980년대 초의 일이다. 서독 내 외국인 수는 노동 협약이 종료되던 해인 1973년 전체 인구의 2.4%에 불과했지만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중단된 후부터 오히려 급속히 증가해 불과 몇 년 후인 1980년경 7.6%로 늘어났기 때문이다.¹⁰⁾ 독일이 ‘원치 않는 이민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도 바로 이 시점이다. 당시 서독 정부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이후 독일 정부의 이주자 정책에 장기적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것은 사실 무정책의 정책 또는 일관성 없는 정책이었다. 학계의 대응도 늦었으니, 이주민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이주 관련 정부 문서가 공개된 1990년대에

10) Klaus J. Bade, *Vom Auswanderungsland zum Einwanderungsland? Deutschland 1880-1980*, Berlin: Colloquium-Verl., 1983, p.98.

이르러서였다.¹¹⁾

바데가 지적한 1970년대는 독일연방공화국 이주사의 분기점이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시작된 1955년부터 1973년까지는 노동자 개인의 단독 이주가 중심이었지만, 노동협약이 종료된 1973년 이후 이주의 양상은 개인 단위 노동 이주에서 가족 단위 집단 이민으로 전환되어 오늘에 이른다. 그와 함께 이주민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주민 집단의 인구학적 성격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 결과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존재이며 사회적 타자인 이주민들의 존재가 독일 사회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1973년 이전에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비교적 단순한 집단이 있었을 뿐이지만, 이제는 복잡한 ‘이민자 문제’가 되어 독일 사회에 ‘다문화 통합’이라는 장기적 과제를 부여했다. 잠시 머무르다 떠날 줄 알았던 ‘손님 노동자’와 그 가족은 이제 독일 사회를 구성하는 비독일계 소수자 주민으로 사회가 껴안고 가야 할 숙제가 되었다.

독일 정부가 송출국들과 개별적으로 맺은 노동이주 협약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었다. 하나는 계약기간을 한정하고 직장, 직종, 지역을 바꾸지 못하도록 노동 조건에 제한을 두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계약이 끝난 노동자는 돌려보내고 필요하면 새로운 계약으로 다시 불러들여 인력을 교체함으로써 노동 이주가 정주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로테이션’ 원칙이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유지될 수 없었으니, 우선 고용주들의 불만이 컸다. 이들은 숙련시킨 인력을 오래 쓸 수 있기를 원했다. 다음으로, 초기에는 단기간에 돈을 모아 귀국하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 경기 침체로 재입국의 문이 좁아지자 오히려 장기체류 희망자가 늘었다. 계약기간이 끝나 고국에 돌아간 후에도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입국할 수 있다는 전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터키나 유고슬라비아 출신 노동자들에게는 본국의 암울한 경제 전망이나 정치 상황도 독일에 남고 싶은

11) 연구사 정리는 이용일, 「파편적·일국사적 이민연구에서 통합적·초국가적 이민연구로 - 독일 이민사 연구노트」, 『서양사론』 93, 2007, pp.305-331 참조.

이유였다.¹²⁾ 1980년대까지 이어진 불황으로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감소했으나 외국인의 수는 줄지 않았다.¹³⁾

독일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귀국을 장려했다. 불황이 닥쳤던 1966년, 1973년, 1982년에는 귀국 비용을 지원하면서까지 노동시장에서 비독일인 인력을 내보내려고 하였다.¹⁴⁾ 그러나 체류를 원하는 노동자들을 억지로 내보낼 수는 없었고, 가족 초청 역시 인도적 이유로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¹⁵⁾ 그 결과 1973년 이후부터 노동이주는 가족이주로 전환되며 이로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주자’(Einwanderer)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게 된다.¹⁶⁾ 노동이주 협약 종료는 결과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정주 이주민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으로써 그 전까지 비교적 단순했던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이제 ‘이민자 문제’로 성격이 바뀌며

-
- 12) 서독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의 약사는 Rainer Münz 외, eds., *Zuwanderung nach Deutschland. Strukturen, Wirkungen, Perspektiven*, Frankfurt/M: Campus, 1999, pp.42-53 참조. 특히 터키 노동자에 대해서는 Jan Motte/Bernhard Santel, “Einwanderung aus der Türkei in die Bundesrepublik von 1961 bis heute. Vom kulturalisierenden Blick auf die Allzufremden”, *Sozialwissenschaftliche Informationen*, vol. 30, 2001, pp.22-32 참조.
- 13) 1973년 당시 노동력의 11.6%와 인구의 6.4%가 외국인이었다는 것과 비교해 1980년대 중반에는 노동력의 7.4%만이 외국인이었지만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로 오히려 늘었다. 이 기간 동안 터키인의 숫자는 약 1.5배 증가했다. R. Erichsen, “Zurückkehren oder bleiben? Zur wirtschaftlichen Situation von Ausländern in der Bundesrepublik”,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vol. 24, 1988, p.5.
- 14) 특히 1983년 콜 정부의 ‘귀국지원법’(Rückhilfegesetz)에 대해서는 Jan Motte, “Gedränkte Freiwilligkeit. Arbeitsmigration, Betriebspolitik und Rückkehrförderung 1983/84“, Motte 외, eds., *50 Jahre Bundesrepublik - 50 Jahre Einwanderung. Nachkriegsgeschichte als Migrationsgeschichte*, Frankfurt/M: Campus, 1999, pp.165-183 참조.
- 15) 가족 초청은 이탈리아(1955), 스페인(1960), 그리스(1960), 포르투갈(1966)과의 노동협약에는 그 가능성을 언급한 조항이 있었지만 유고슬라비아(1968), 터키(1961), 모로코(1963), 튀니지(1965)와의 협약에서는 처음부터 배제되었다. Mathilde Jamin, “Fremde Heimat. Zur Geschichte der Arbeitsmigration aus der Türkei“, Motte 외, op. cit., pp.145-164, 여기서는 p.149 참조.
- 16) Faruk Sen/Andreas Goldberg, *Türken in Deutschland: Leben zwischen zwei Kulturen*, München: Beck, 1994, p.20f.

완전히 새롭고 장기적인 과제를 독일 사회에 부여했다.

첫째, 고강도 저임금 노동에 집중되었던 외국인 노동자들은 경제 호황이 끝나며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고, 독일 내 실업률이 치솟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배타성은 강해졌다. 하물며 고국의 가족을 데려오는 것은 환영받지 못했다. 외국인 노동자는 애초에 독일 사회가 필요해서 데려온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마음대로 돌려보내지도 못하는 ‘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양이 필요한 가족까지 데려옴으로써 ‘불필요한 짐’을 늘리는 존재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주민에 대한 배타성과 외국인 적대는 노동이주가 가족이주로 전환된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다.

둘째, 가족 단위로 살게 된 이주민들은 과거 독일인 노동계급의 주거지였던 도심의 낙후된 구역에 모여 들며 일종의 고립된 섬을 형성했다. 그러나 이는 이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 짠 집세와 독일 사회의 배타성, 생활의 편의 때문이었다.¹⁷⁾ 소수자로서의 지리적·정서적 계토화가 이주자들의 사회통합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는 일찍부터 나왔다. 이주민의 공간적 고립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금 독일인들의 반감을 부추기며 이민자들의 고립을 심화시켰다. 이로부터 이주민들이 독일 사회와 섞이지 않고 그들만의 사회, 이른바 “대칭사회”(Parallelgesellschaft)를 형성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¹⁸⁾

17) 이런 사례는 19세기 말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거대 수요자였던 루르 공업지대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다. 탄광도시 헤르네(Herne)의 경우 과거 폴란드 이주민 광부들과 그 가족의 거주 지역이었던 호르스트하우젠(Horsthausen)이 1960년대 이후 터키 이주민 거주지로 변하며 계토화 되었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구역에 따라 외국인의 비율은 5%에서 30% 이상까지 천차만별이었다. Frank Braßel/Michael Clarke/Ralf Piorr, “Zog in die Ferne, ins Paradies, und das liegt irgendwo bei Herne.” - Migration und Stadtgeschichte”, Ralf Piorr, ed., *Eine Reise ins Unbekannte. Ein Lebebuch zur Migrationsgeschichte in Herne und Wanne-Eickel*, Essen: Klartext, 1998, pp.248-259, 여기서는 pp.249ff 참조.

18) ‘대칭사회’는 1990년대에 터키 이주민 집단의 독일 주류 사회 통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들어온 개념으로 2003/4년 히잡 착용 논쟁을 계기로 대중화되었다. 최근에는 ‘다문화’의 대척점에 있는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다. 터키 이주민 사회의 고립성을 강조하기 위해 ‘고립사회’ 또는 단어의 원 뜻을 살려 ‘병행사회’로

셋째, 가족 이주에 따른 결과인 자녀 세대의 언어습득과 문화적 동화의 어려움이다. 사회적 지리적으로 고립된 이주민 주거지에서 자라나는 이주 2세대는 학군제의 특성상 독일 사회와 접촉할 기회가 적고, “2개 국어를 할 줄 알지만 문맹”이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올 정도로 학교에서조차 독일어 읽기·쓰기·말하기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모국어 습득도 마찬가지로 완벽하지 못했으나 그것은 초기에는 독일 사회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사회적 취약 계층인 부모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으니 직업학교 졸업장이나 제대로 된 자격증도 없이 사회로 나가면 결국은 거대한 아웃사이드 집단이 되어 사회 불안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것을 단지 편견 섞인 우려라고 몰아붙일 수는 없으니, 사회적 자본의 재분배 기능을 교육기관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면 이주민 1세대의 사회적 취약성이 학교를 거쳐 다음 세대의 사회적 불평등으로 재생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독일 사회에 이주민 집단에 대한 막연한 반감과 공포를 조장하고 ‘독일인 대 외국인’이라는 사회적 문화적 대결 구도를 만들어냈다. ‘이민자 문제’의 핵심에는 ‘이주민 가족’이 있으며, 그 중심은 터키계 주민들이었다. 1961년 독일과 터키 사이에 노동자 송출 협약이 체결된 것은 터키 정부의 적극적 노력 때문이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전형적인 ‘개발도상국’인 터키 정부가 농촌의 잉여 노동력을 어떻게든 해외로 내보내려는 이유로 독일 측에 노동자 송출을 강력히 제안했고, 독일 정부는 노동력을 굳이 터키에서까지 데려올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었지만 터키가 유럽경제공동체(EWG) 가입 신청을 한 터이고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에서의 역할도 고려하여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¹⁹⁾ 서독에 입국하는 터키 노동자 수는 해마다 늘어 1966년 15만8천 명,

번역하지는 제안도 타당하지만, 국내의 몇몇 논문에서 ‘대칭사회’라는 용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기존 번역을 따랐다.

19) Johannes-Dieter Steinert, *Migration und Politik. Westdeutschland - Europa - Übersee 1945-1961*, Osnabrück: Secolo-Verlag, 1995, p.307.

1966/67년 불황으로 다소 줄어 13만7천이었지만 협약 중단 전체인 1972년에는 독일 내 외국인 중 최대 다수 집단이 되어 있었다. 협약 중단 후 터키인들의 입국은 오히려 폭증하여 1974년 61만8천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추세로 돌아섰지만 1978년에도 51만4천 명이 독일로 건너왔으니 이는 가족초청이민(Familienzusammenführung)의 결과였다.²⁰⁾ 독일 거주 외국인 중 터키 국적자의 비율은 1982년 46%에 달했으며, 그 다음이 유고슬라비아(18%), 이탈리아(17%), 그리스(9%), 스페인(5%) 순이었다.²¹⁾ 1992년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취업자 중 터키인의 비율은 33%로 인구비율에 비해 작운데, 이는 터키인들이 다른 외국인 집단에 비해 가족을 독일에 데려와 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터키 노동자들은 전통적 공업 지역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의 석탄, 철강, 건설, 섬유, 화학 산업 도시들에 주로 정착하였으며, 1970년대 이후 이 분야들이 사양 산업으로 구조조정을 거치게 되면서 다른 분야의 질 낮은 일자리와 서비스 직종의 자영업자로 전환하여 주변 대도시로 진출하였다.²²⁾ 루르 지역의 석탄 광산들은 1955년 외국인 노동자를 대규모로 받아들인 첫 사업장 중 하나였다. 석탄 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며 외국인 노동자 고용은 더욱 증가하였으니 1987년 서독 석탄 광산의 지하 갱부 4명 중 1명이 외국인 노동자였으며,²³⁾ 그 중 80% 이상이 터키인이었다. (<도표 1> 참조) 지금도 루르 지역을 포함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는 공업 전통과 도시 집중이라는 지역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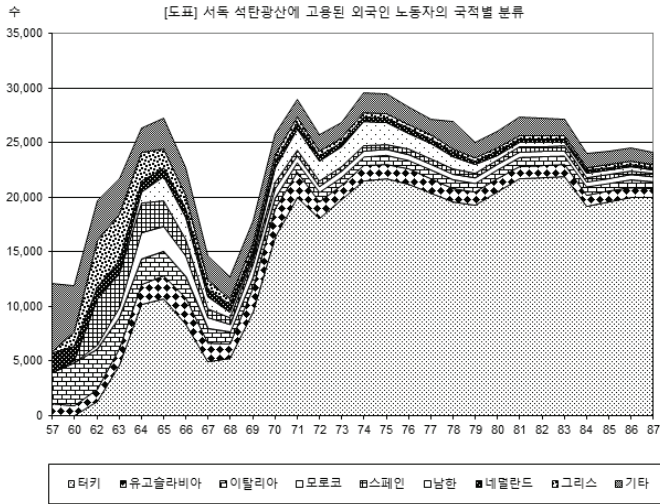
20) 터키 국가의 노동력 송출 정책과 터키인들의 노동 이주 동기 및 연간 규모는 Ertekin Özcan, "Die türkische Minderheit", Comelia Schmalz-Jakobsen/Georg Hansen, eds., *Ethnische Minderheit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in Lexikon*, München: Beck, 1995, pp.511-528 참조.

21) Zentrum für Türkeistudien, *Aus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in Handbuch*, Opladen; Leske+Budrich, 1994, p.26.

22) Ulrich Herbert, *Geschichte der Ausländerpolitik in Deutschland. Saisonarbeiter, Zwangsarbeiter, Gastarbeiter, Flüchtlinge*, München: Beck, 2001, p.237.

23) Statistik der Kohlenwirtschaft, *Der Kohlenbergbau in der Energiewirtschaf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m Jahre 1987*, Essen/Köln 1988, p.34.

으로 인해 독일 연방공화국에서도 외국인과 이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에 속한다.²⁴⁾ 1983년 콜(Helmut Kohl) 정부의 이른바 ‘이주민 귀국 지원’(Rückkehrhilfe)은 사실상 터키 이주민을 겨냥한 조치였지만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도표 1〉 서독 석탄광산 외국인 노동자의 국적별 분류 (1957-1987)²⁵⁾

독일 사회에서는 1950-60년대 경제성장과 복지국가 형성을 통해 계급

24) 루르 공업 지역의 역사는 150년에 걸친 이주의 역사이기도 하다. 첫 노동이주는 1870년대 동유럽으로부터 시작되어 1880/90년대 정점을 이루며 지역 인구의 폭발을 주도한 후 1905/10년 광산업 성장세가 완만해짐과 함께 끝났다. 그 다음으로는 1945년 이후 산업 재건 과정에서 전후 폴란드에 귀속된 오데르-나이제강 동쪽 지역으로부터의 피난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노동이주민들이 몰려들었다. 마지막이 196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이주다. Dietmar Petzina, *Die Bedeutung der Migration am Beispiel des Ruhrgebietes*, Bochum, 1994.

25) Statistik der Kohlenwirtschaft, *Der Steinkohlenbergbau in der Energiewirtschaf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73), p. 29, (1980), p. 51, (1987), p. 34의 표로부터 직접 작성.

갈등이 제도화하며 계급 담론이 사실상 사라졌다. 사회 불평등 문제에 주목했던 사회학자들은 이 시기에 노동자계급이 ‘신 중간계급’으로 성장하여 사회계층구조가 피라미드처럼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구조에서 다이아몬드나 양파처럼 중간층이 볼록한 구조로 변했다는 이론을 제시했다.²⁶⁾ 벡은 자본주의적 계급구조가 기본적으로는 변하지 않은 채 모든 계급이 ‘계급협조’를 통해 고스란히 승강기를 타고 위로 올라갔을 뿐이라는 ‘승강기 효과’를 주장했다.²⁷⁾ 독일인 노동자 계층과 그 가족이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 비워진 자리는 곧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으로 채워졌다. 이주노동자의 존재를 생각한다면 독일사회의 계층구조 자체가 사라졌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공업과 서비스 부문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들은 노동 강도가 세고 임금이 낮은 업종의 노동력으로 종사하며 역사상 유례없는 1950- 60년대의 경제호황기에 중산층으로 상승한 독일 노동자계급이 떠난 자리를 채웠다. 사회 계층의 밑바닥으로 편입되어 도시의 새로운 프롤레타리아가 된 것이다.

Ⅲ. 이질적 가족구조와 ‘타자’의 딱지

이주 자체는 개인적 결정이지만 가족적·사회적 맥락과 깊이 연결된다. 서독의 외국인 남성 노동자들은 대부분 고향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홀로 노동이주를 결심했다. 이들의 이주 동기가 가족 부양이라면, 여성들은 종종 출신 가족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의지에서 이주를 결정했다.

26) 이른바 ‘피라미드 모델’로부터 ‘다이아몬드 모델’ 또는 ‘양파 모델’로의 변화. A. 기든스 저, 장정수 역, 『선진 사회의 계층구조』, 종로서적, 1982.

27) 울리히 벡 저, 홍성태 역, 『위험사회』, 새물결, 2006. 승강기 효과의 허구성은 1970년대 경기침체 이후 ‘신 빈곤’과 함께 가시화되었으니, 벡은 복지제도가 ‘계급’이 아닌 ‘국민’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개인들을 계급정체성으로부터 탈구시켰다 주장했고, 이처럼 복지제도를 매개로 한 개인주의에 ‘제도화된 개인주의’라는 이름을 붙였다.

미혼 여성은 출신지역과 가족의 억압적 분위기로부터 벗어나려는 희망이, 기혼 여성은 자녀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과 삶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 주된 이주 동기였다. 그러나 가족을 위해 오히려 가족 특히 자녀들과 장기간 이별하는 경우도 있으니 졸지에 부모 있는 고아로 자라게 되는 자녀들은 이주의 최대 피해자가 된다. 이것이 애초 비유럽권 출신 이주민 노동자의 가족 초청 기회를 차단했던 독일 정부가 끝내는 그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주민 가족’이 2000년 가족보고서의 주제가 된 것은 ‘이주배경을 가진 가족’에 독일 사회가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했음을 뜻하지만, 거꾸로 이들이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주목해야 할 집단으로 떠올랐다는 의미도 된다. 1990년대 이래 이주민 가족에 붙은 “대청사회” 딱지에는 이들이 스스로를 독일 주류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독일 사회의 지배적 가치인 민주주의 원칙과 조화되지 않는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이주민 가족은 독일 복지국가와 교육체제에 부담을 주는 존재로 여겨졌다. 특히 터키 이주민 자녀들의 교육과 사회 통합은 장기적이고 어려운 과제가 되리라는 우려가 일찌감치 나왔다. 그 근거는 독일 내 터키 이주민 사회의 문화적 종교적 이질성, 그리고 부모 세대인 이주 1세대의 취약한 사회적 자원이었다. “골치 아픈” 아이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터키 출신 이주자 가족에 대한 독일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독일 사회의 관심이 특히 집중된 것은 이주민 가족의 높은 출산율이었다. 늙어가는 독일의 인구 구조 균형을 터키인들이 맞추어 줄 수 있다는 전망과, 젊은 터키인들이 늙은 독일을 “접수”할 것이라는 인종주의적 공포가 공존했다. 독일 사회는 전반적이고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과 노령화가 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 지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과 씨름하는 중이었다. 독일 여성들이 평균 1.3명의 자녀를 낳는 데 비해 터키 여성들은 그 두 배인 2.6명을 낳았다. 터키 여성의 출산율은 1975년 당

시 독일 여성보다 약 3배 높았고 1980년대 중반까지 좀 더 낮아지기는 했으니 여전히 2배나 높았다.²⁸⁾ 1991년 당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정부의 위탁을 받아 뮌스터 대학에서 작성한 이주민 보고서에 의하면, 이주민의 평균 가구 규모는 2.6~2.8명인데 오로지 터키 가족만이 3.6명으로 비교할 수 없이 높다. 그 이유는 4인 이상 가구 비율이 53.7%에 달하기 때문인데 터키를 제외한 다른 이주민 집단에서 이 비율은 많아도 1/3을 넘지 않는다. 반면 1인 가구 비율이 다른 집단에서는 20-30% 수준인데 터키인들에게서는 12.2%에 불과하다.²⁹⁾ 이는 명백히 터키 이주민들이 가족 단위로 살며 자녀수 또한 많다는 뜻이다.

자녀수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만은 아니며 일종의 관행이다. 여기에는 문화, 종교, 사회 분위기가 일정한 역할을 한다. 독일 사회에서는 가톨릭 신자와 보수주의 정당 지지자, 외국인 노동자가 일반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집단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가족의 출산율이 높은 것을 무조건 출산 관행으로 몰아붙일 수는 없다. 여기에는 좀 더 구조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우선 초기 이주민의 성비를 보면 남성의 수가 여성보다 훨씬 많았다. 1973년 당시 독일 내 외국인의 수는 3백만인데 그 중 여성은 78만 명뿐이었다.³⁰⁾ 또한 연령구조상 젊은 층 인구가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1999년 통계에 의하면 40세 이하 인구 비율이 독일 전체로는 51%인데 이주민은 77%에 달했다.³¹⁾ ‘전체 인구’에서 이주민

28) Peter Marschalck, *Bevölkerungsgeschichte Deutschlands im 19. Und 20. Jahrhundert*, Frankfurt/M: Suhrkamp, 1984, p.99.

29) Ministerium für Arbeit, Gesundheit und Soziales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ed., *Landessozialbericht. Ausländerinnen und Ausländer in Nordrhein-Westfalen. Die Lebenslage der Menschen aus den ehemaligen Anwerbeländern und die Handlungsmöglichkeiten der Politik*, Neuss, 1994, p.116.

30) Herman Schubnell, *Der Geburtenrückga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 Entwicklung der Erwerbstätigkeit von Frauen und Müttern. Schriftenreihe des Bundesministers für Jugend, Familie und Gesundheit, Vol. 6*, Stuttgart: Kohlhammer, 1973, p.21.

31) Harald W. Lederer 외, eds., *Migrationsbericht 1999. Zu- und Abwanderung nach und*

을 제외하면 독일인 중 40세 이하의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칠 것이다. 이는 젊은 남성만을 주로 받아들였던 노동 이주 정책의 당연한 결과이며, 그렇게 정착한 남성 노동자들이 협약 중단 이후 고향의 가족을 독일로 불러들인 결과이기도 하다. 1970년대 중반 독일에 새로 도착하는 터키인의 60%가 18세 이하 청소년이었다.³²⁾

터키 이주민 가족에 대해 독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높은 출산율 외에도 엄격한 가부장적 가족과 여성 억압이다. 여성의 지위 문제는 터키 이주민 가족에게 ‘타자’ 딱지를 붙이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다. 잇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히잡 강요’, ‘강제 결혼’, ‘명예 살인’ 등은 이런 편견을 강화시키는 소재들이다. 일반적으로 이주 경험을 거치며 가족 내 전통적 가부장성은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가족을 유지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맡는 여성의 역할이 커지고, 부모나 가장의 권위는 약화되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 1>을 보면, 가족 내 가부장성 정도를 독일인 대 이주민으로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 아버지의 입김은 가령 이탈리아나 유고슬라비아 이민자 가족에서보다 독일인 가족에서 더 크기 때문이다. 가장의 발언권이 가장 크기로는 터키와 그리스 이주민 가족이다. 중요한 가족적 결정은 대부분 아버지 혼자 내리고 부부의 파트너십이 발휘되는 경우는 비교적 적다.³³⁾

aus Deutschland. Im Auftrag der Bundesregierung für Ausländerfragen, Bonn: Bonner Universitätsdruckerei, 1999, p.10.

- 32) M. Frey, “Aus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Ein statistischer Überblick”, *Parlament*, 1982년 6월 26일, p.9.
- 33) 그런데 터키 가족과 그리스 가족은 강력한 가부장성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 만, 본국의 출산율에서는 터키 3.7 그리스 1.7로 차이가 크다. 가부장성은 출산 관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이 점에서 두 나라의 가족구조와 문화는 서로 다른 가부장성을 보인다. Zentrum für Türkeistudien, op. cit.

〈표 1〉 가족의 의사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가?³⁴⁾

	터키	그리스	스페인	유고슬라비아	이탈리아	독일
아버지	56%	49%	20%	16%	12%	19%
어머니	1%	0%	3%	2%	4%	4%
부부 공동	43%	51%	78%	82%	84%	77%
합계	(120)	(57)	(80)	(45)	(69)	(197)

이주민 가족의 젠더 위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이주 경로와 순서이다. 가령 남편보다 먼저 이주해 온 여성이나 독신으로 건너와 현지에서 결혼한 여성의 경우 가정의 주도권을 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터키 여성들은 노동력으로서가 아니라 가족 초청이나 결혼을 통해 이주하였으므로 이들의 독일 생활은 처음부터 남편에게 의존한 채 시작되었다.³⁵⁾ 가족초청 초기인 1970년대에 독일로 이주한 터키 여성들의 경우 30%만이 이주 전 터키에서 직업이 있었고 그것도 대부분 미숙련 노동자였다.³⁶⁾ 이들의 취업률은 이주 후에도 대단히 낮았다. 서독 정부가 가족 초청에 대해서는 4년간 취업 금지 조항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과 16-18세의 청소년들에게 적용되었으니, 노동 능력과 의사가 있더라도 첫 4년간은 꿈쩍없이 남편이나 아버지의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직업교육 과정에 들어가는 것도 금지되었다.³⁷⁾

34) Bernhard Nauck, *Arbeitsmigration und Familienstruktur: eine Analyse der mikrosozialen Folgen von Migrationprozessen*, Frankfurt/M: Campus, 1985, p. 23.

35) 외국인의 가족이주 규모 통계는 1996년부터 비로소 작성되기 시작했는데, 1990년대 후반 해마다 55000~64000명이 가족초청을 통해 독일에 입국하였고 그 중 다수가 터키에서 왔다. 가족초청의 77.8%는 결혼에 의한 것이었다. Harald W. Lederer, op.cit., pp.10, 19f.

36) Sadi Ütincü, *Die Ausländerbeschäftigung und die sozio-ökonomische Situation der türkischen Frau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Frankfurt/M: Fischer, 1980, p.20.

37) Eva Kolinsky, "Non-German Minority in German Society", David Horrocks/ Eva Kolinsky, eds., *Turkish culture in german society today*, Oxford: Bergahn, 1996, pp.71-111, 여기서는 p.90 참조. 여기에는 특이하게도 터키 이주민 2세 여성과

가장에게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주민 가족에서 가부장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므로 터키 여성들의 가족 내 낮은 지위는 그들이 터키에서 가지고 온 전통적 가치관이나 부족한 독일어 구사 능력 때문만은 아니다. 그 어려움은 또한 이주민 가족의 거주 환경 즉 독일인 사회와는 거의 접촉이 없는 이주민 주거지의 폐쇄성 때문이기도 하다. 1970년대 가족이주 초기 단계에 결혼을 통해 독일에 정착한 터키 여성들은 독일어 문맹자로서 그들만의 계도 안에서 전통적인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느라 독일인 사회와의 접촉이 거의 없었다.³⁸⁾ 그리하여 터키 여성은 독일어도 못하고 오로지 집에서 살림만 하며 끊임없이 아이들을 낳는다는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이런 상황이 자녀 세대에서는 나아졌는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양성평등부가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젊은 외국인 여성은 직업교육 시장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다. 숙련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직업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생 자리를 얻는 것부터 어려웠기 때문이다. 1986년 통계에 의하면 여성 직업교육생 중 외국인 비율은 6.3%인데 해당 연령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5%에 이른다. 1992년 통계에 따르면 여성 청소년 중 외국인 비율은 17.5%로 늘어나고 직업교육 과정 지원자 중 16.9%를 차지하지만, 이들에게 돌아간 교육생 자리는 6.4%뿐이다. 이는 직업교육시장에서 외국인 여성이 독일인 여성에 비해 두세 배 더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는 뜻이다.³⁹⁾

결혼하여 독일로 건너간 터키 남성의 사례가 실려 있다. 가족초청 비자로 독일에 입국한 이 남성은 4년간 취업비자를 받지 못하는 규정에 묶여 아내가 청소부로 일하며 생활비를 버는 동안 집에서 아이를 돌봤다. 장인의 식료품점 일을 돕는 것은 취업비자 없이도 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장인과 같은 세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역시 불법이었다. 그렇다고 장인의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불법이었으니, 애초에 가족초청 조건이 가족의 독립적 거주에 적합한 집을 얻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 38) Heiner Holtrügge, *Türkische Familien in der Bundesrepublik. Erziehungsvorstellungen und familiäre Rollen- und Autoritätsstruktur*, Duisburg: Sozialwiss. Kooperative, 1975, p.76; G. Mertens/Ü. Akpınar, *Türkische Migrantenfamilien*, Bonn, 1977, pp.106ff.

양적 차별을 넘어 질적 차별은 더욱 심각하다. 블루칼라 중에서 좋은 일자리에 속하는 중공업과 전문기술직은 인습적인 이유로 주로 남성 청소년에게만 열려 있다. 여성에게 좀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화이트칼라 직종 중에서도 좋은 일자리에 속하는 은행·보험 업계와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외국인 여성의 진입은 상대적으로 어렵고, 1980-90년대에는 사실상 차단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외국인 여성 청소년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교육의 기회란 숙련도나 안정성과는 거리가 멀어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 보고에 따르면 1980년대 중반 외국인 및 터키계 여성 청소년은 주로 미용사와 치과 보조 같은, 가장 숙련도 낮은 직종의 교육 과정에 몰려 있다. 외국인 여성 청소년의 33%, 터키 여성 중 39%가 이 두 분야에 몰려 있지만 독일인은 15%에 불과하였다.⁴⁰⁾

이주민 여성의 사회적 취약성은 세대를 거쳐 대물림되었다. 노동 이주 1세대는 사회 하층으로 우선 편입되는 바, 남녀 모두 본국에서 획득한 노동력이나 교육 자원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2세대 여성의 경우에는 출신 가정의 빈약한 자원으로 인해 직업 교육과 학교 교육에서 같은 또래의 독일여성이나 이주민 2세대 남성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부족한 교육 자원과 사회 자원을 매개로 다시금 사회 하층부로 배치된다. 그 원인은 독일 사회뿐만 아니라 이주민 가족 내에도 있다. 딸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머니다. 그런데 터키 이주민 가족에서는 가족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데다 중요한 가족적 결정에 어머니의 영향력이 적으므로 딸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⁴¹⁾ 이런 사정은 세대를 거치며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불균형은 여전히 해소되

39) Ministerium fü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ed, *Frauen in NRW. Berufliche Situation und Existenzsicherung. Dokumente und Berichte 29*, Düsseldorf, 1994, p.27ff.

40) Ibid., 부록(Tabellenanhang)의 Tabelle I.1.6.A 참조 (쪽수 없음).

41) Holtbrügge, op. cit., p.120.

지 않았다. 학교에서 터키 아동들의 상황은 1980년대 이후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외국인 가정 출신 아동들의 수는 독일 아동들에 비해 여전히 빠른 속도로 감소한다.

IV. ‘터키 이주민 가족’은 존재하는가?

‘사회적 타자’에 대해 형성되는 주류 사회의 고정된 이미지들은 이들의 통합을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 터키계 이주민들은 독일 사회에서 여러 모로 이질적인 집단으로 여겨져 왔다. 외국인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규모에다 유럽연합 소속도 아니며 서구 기독교 전통과 오랜 적대의 역사를 지닌 무슬림이라는 종교적 배경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그 위에 서구적 가족 전통과는 유별나게 이질적인 가족구조 역시 이들에게 ‘타자’의 딱지를 붙이는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된다. 서구의 사회문화적 틀에서 만들어진 독일인의 가족적 삶은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출발한 터키계 이주민들의 것과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이 이질성을 단지 ‘터키에서 왔기 때문에’로 돌릴 수 있을까?

가족은 사회적 구조물이다. 전통 사회에서 가족은 삶의 기본 단위로서 노동과 생존의 공동체였고, 가족과 이웃 간의 결속력은 상호의존에 대한 필요성에 근거하였다. 따라서 가족의 구조는 그것을 이루는 구성원과 친족 범위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물질적 정서적 상호의존도에 의해 결정되며, 삶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바뀌면 가족의 의미와 구조 역시 변화한다. 그런 이유로 가족이 살아가는 모습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며, 또 주어진 조건에 따라 변화하고 때로는 그 조건 자체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탄력성이 있다. 국경을 넘는 이주의 경험은 삶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송두리째 바꾸는 변화이다. 이 과정에서 가족 및 친족 네트워크는 더욱 중요해지는데, 구성원 간 물질적 정서적

상호의존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연쇄이주’(chain migration)라는 개념이 나왔다.⁴²⁾ 노동자 한 사람이 이주해 정착하고 가족을 불러들이면 그들이 친족집단 네트워크를 통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자리와 주택을 증개하면서 집단 이주로 발전하여 결국에는 마을 전체가 통째로 이주지로 옮겨오는 것이다. 친족을 통한 이주는 단신 이주보다 현지 정착과 적응을 쉽게 만들어준다. 사회자원이 부족한 이주자들의 적응과 통합을 친족 네트워크가 돕기 때문이다. 개인의 노동 이주는 이런 식으로 가족과 친족의 집단 이주로 연결된다. 19세기 말 폴란드에서 독일 루르 공업지대로 건너온 노동자들이 그러했고, 이 점에서 20세기 후반 독일로 건너온 터키 노동자들의 정착 방식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독일에 정착한 터키 이주민의 2/3는 도시가 아닌 농촌 출신이었다.⁴³⁾ 동부 아나톨리아의 빈곤한 농촌에서 태어나 부분적으로는 터키 안에서 일단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이주한 후 최종적으로 독일의 공업 도시로 이주했다. 이는 단지 터키 문화에서 독일 문화로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농촌에서 도시로, 농업적 생활 방식에서 산업 사회의 생활 방식으로 이중 삼중의 변화를 의미한다.⁴⁴⁾ 어느 터키 출신 노동자는 서독에 도착했던 순간을 “이스탄불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는 3000킬로미터다. 그러나 우리는 삼천 년의 시간을 건너온 것 같았다”고 회고한 바 있다. 그러므로 터키 이민자들의 가족적 삶과 구조가 독일인들과 다른 이유를 문

42) 미국의 가족사 연구자인 해러본이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 뉴햄프셔 지역 맨체스터 섬유노동자들의 이주 연구에서 이 개념을 사용했다. Tamara Hareven, *Family Time and Industrial Time*,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2.

43) 터키 이주민 남성 중 72%가 농촌이나 지방 소도시에서 태어났다. Bernhard Nauck, op. cit., p.27.

44) 스페인, 그리스, 터키, 남이탈리아 출신 노동자의 본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출신과 지위 분석 참조. Peter Rothammer 외, *Integration ausländischer Arbeitnehmer und ihrer Familien im Städtevergleich. Probleme, Maßnahmen, Steuerungsinstrumente*, Berlin: Dt. Inst. für Urbanistik, 1974, pp.213ff.

화와 종교의 차이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더욱이 터키 이주민들은 유형화된 편견으로 묶을 수 있는 동질적 집단이 아니다. 사회적으로는 도시와 농촌 출신, 종교적으로는 시아와 수니 사이의 구별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터키 주류 사회 출신과 쿠르드 출신 사이에는 긴장과 적대가 흐른다. 이슬람 문화권의 국가로는 드물게 서구적 근대화를 일찍 시작한 터키의 경우 도시와 농촌 간 생활양식과 가치관의 차이는 종종 ‘남북 격차’ 또는 ‘동서 격차’로 표현될 정도로 같은 나라 안에 존재하는 차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그러므로 농촌 출신 이주민들은 비록 도시 생활을 거쳤어도 농촌 마을의 전통적이고 인습적인 가족적 삶에 좀 더 깊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나의 국가와 문화 안에서도 가족적 삶과 구조는 도시와 농촌, 사회계층과 지역 경제구조에 따라 편차가 크다. 가령 농촌 가족은 도시 가족에 비해 대규모이며 경제적 협력을 이유로 여러 세대와 친족들이 비교적 근거리에 모여 살며 촘촘한 관계망을 구성한다. 도시의 생활양식과 주택 구조는 이러한 관계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이주는 필연적으로 가족관계와 그 구조의 변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터키 안에서도 가족 형태는 지역별로 유형화되어 있다. 국제적인 대도시인 앙카라나 이스탄불의 경우 소규모 핵가족이 2/3에 달하지만 농촌으로 갈수록 부계 확대가족의 비율이 높아진다.⁴⁵⁾ 도시 출신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노동자 가족은 중산층 가족에 비해 출산율이 높고, 노동자 중에서도 농촌의 출산율이 도시보다 높다. 그러므로 터키 이주민 노동자 가족의 가족 구조를 분석하려면 그들의 지역적 사회적 출신 배경을 먼저 고려해야만 한다.

그런 이유로 ‘터키 가족’이란 독일에도 터키에도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다. 가족 규모, 가부장적 계서구조, 생활양식 등을 결정짓는

45) Bernhard Nauck, op. cit., p.31.

것은 그들이 터키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주 전 터키에서 살았던 삶이 기 때문이다. 전통을 중시하고 남녀의 역할구분이 엄격한 농촌지역 출신인가 아니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합리화된 대도시 출신인가? 터키 안에서도 도시와 농촌의 생활방식 차이는 엄청나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독일로 이주하기 전 대도시에 거주했던 가족이라도 출신지는 농촌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들은 터키 안에서 먼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후 국제이주를 감행했다. 이 경우 이주민 가족을 지배하는 것은 농촌적 생활방식과 가치관이며 이는 터키 안에서도 도시적 생활방식 및 가족적 삶과 충돌한다. 그러므로 터키 대 독일이 아니라 농촌적 삶과 도시적 삶의 대비가 분석 틀이 되어야 한다.

『제6차 가족보고서』(2000)는 다문화간 결혼에 대한 독일인과 이주민들의 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문화간 결혼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이주민에게는 주류 사회 구성원과 결혼하는 것이 주류 사회 통합을 위한 효율적인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터키 출신 이주민과 독일인의 통혼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터키인 쪽에서보다 독일인 쪽에서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났다.⁴⁶⁾ 이는 이주민들이 독일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과연 이주민들 스스로의 문화적, 종교적 이질성이나 약한 의지에만 있는지 묻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터키 이주민 후세대 남성들 사이에 본국에서 신붓감을 데려오려는 보수적 경향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눈 여겨 볼만하다. 그 의미는 여러 가지로 추론할 수 있다. 하나는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수용국의 성별 질서에 맞서 가족 내 남성의 특권을 지키려는 의지일 수 있으며, 또 다른 한 편으로는 독일 정부가 이주민들에게 사회에 ‘동화’되도록 압력을 넣고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저항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⁴⁷⁾

46)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op. cit., p.86.

47) 이주민 집단의 결혼 관행 비교분석에 대해서는 제6차 가족보고서의 부록인 자료집 Gaby Straußburger, “Das Heiratsverhalten von Personen ausländischer Nationalität oder Herkunft in Deutschland”, Sachverständigenkommission 6. Familienbericht, ed.,

이주민들의 적응방식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 그 한 쪽 극단에 있는 것이 본국의 가정에 비해 실제로 더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고 가부장적인 이민자 가정이다. 본국의 사회, 문화, 정서는 계속 변화하지만 ‘고국’과 관련된 이주민들의 정서는 그들이 본국을 떠난 시점에서 멈춰버리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이주민들이 본국에서는 사라진 ‘전통’을 고수하는 문화정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비단 터키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⁴⁸⁾ 때로는 문화적 정체성의 한 자락을 부여잡으려 본국의 ‘전통’에 보수적으로 매달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이주민의 보수성을 문화적 비타협성의 증거로 보기보다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적응 전략 중 하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터키 이주민들은 독일인들의 편견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가족구조의 변화를 거쳐 왔다. 왜냐하면 이주자에게 가족적 삶의 구조와 형태를 유지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은 주류 사회에의 적응, 나아가서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대에 이르러 가족은 해체론이 나올 정도로 그 의미와 형태가 변화하고 있지만, 학자들은 공동체적 삶의 기본 단위인 가족적 삶 자체는 소멸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해체가 아닌 다양화, 즉 변화에 무게를 싣는다. 이 점에서 독일 내의 터키 출신 이주자들은 독일인들이 막연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민을 통해 나름대로의 변화를 거쳐 왔다. 우선 직계가족 외의 초청 이민은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독일 내의 터키 이주민 가족들은 출신국에 비해 소규모 핵가족화 된 경우가 많다. 또한 이민의 전

Familien ausländischer Herkunft in Deutschland: Empirische Beiträge zur Familienentwicklung und Akkulturation. Materialien zum 6. Familienbericht, vol.1, Opladen, 2000, pp.9-48 참조.

- 48) 이런 사례는 터키인들과 마찬가지로 ‘손님노동자’로 독일에 정착한 재독 한인들의 회고에도 나온다. “[...] 한국에 와보니 그 동안 한국사회는 급격히 변해 있었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한국은 ‘골동품상’에나 가야 볼 수 있었다. 내가 자란 땅에서 내가 고립된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실은 타국에 살면서 이방인임을 실감하는 것보다 더 나를 혼란 시켰다.” 인용 출처는 재독한국여성모임, 『독일이주여성의 삶, 그 현대사의 기록』, 당대, 2014, p.58.

과정과 새로운 삶에의 정착은 온 가족 구성원의 협력을 필요로 하므로 자연스럽게 여성의 역할이 커진다. 이민자 사회는 주류 사회의 규범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 이후 세대를 거치며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터키 이민자 가족”이라는 유형화된 편견은 유효하지 않다.

V. 맺음말 - 신 프롤레타리아 가족?

서구의 사회문화적 틀 안에서 형성된 독일인의 가족적 삶과 또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출발한 터키 출신 이주자들의 가족은 서로 이질적일 수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터키 이주민은 본국에서의 가족적 삶을 독일에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다. 삶의 조건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며 새로운 터전에 유연하게 대처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가족적 삶에는 그 과정이 반영되어 있으며, 아직 끝나지 않고 세대를 거치며 계속 진행 중이다. 이주자에게 가족의 구조와 형태를 유지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은 동화·통합·저항 그 어떤 형태를 취하든 주류 사회에 적응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가족’이란 변하지 않는 고정된 구조물이 아니다. 이 점에서 터키 이주민 가족의 변화는 단지 ‘동화’나 ‘서구화’로만 설명할 수 없다.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결말이 열려 있는 적응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 가족구조와 가족적 삶을 모습을 ‘통합’의 척도로 보고 여기에 나타나는 이질성에 ‘사회적 타자’ 딱지를 붙이는 행위는 가족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초기 노동이주 단계의 이주자들은 미혼의 젊은 남성, 가족을 고국에 남겨두고 홀로 생활하는 기혼 남성, 그리고 소수의 미혼 여성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이후 독일에서 결혼하여 가족을 이루거나 고국으로부터 가족을 데려왔다. 따라서 1973년 이후에는 이주자 집단의 성비와 연령구

조가 질적으로 변화한다. 가족이주 단계로 넘어가면서 가족초청과 결혼을 통해 이주민 여성의 숫자가 증가하고 현재 3세대까지 자녀 출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주 1세대가 은퇴하는 시점에 이르러 최종적으로 이주자 집단 역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주의 경험은 이주자들의 가족적 삶과 유형을 변화시켰으니 그 중심에는 대규모 확대가족으로부터 소규모 핵가족으로의 전환이 있다. 이주자들의 가족규모는 대체로 현지의 관행에 동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터키 출신 이민자 가족은 독일인이나 기타 이주자 가족에 비해서 내부 응집력이 높고 출산율이 높으며 독특한 가족 구조와 문화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독특성은 이주를 거치며 나름대로 적응한 결과다. 여기에는 순응과 저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주 1세대조차도 이미 결혼과 출산 관행에서 송출국의 전통과는 달리 새로운 삶의 터전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따라서 이들이 선택하는 결혼과 출산 전략, 가족적 삶에 대한 전망은 송출국을 떠날 때 가져온 가치관과 문화적 태도, 그리고 현지에의 적응 노력이 혼합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세대, 3세대로 가면 이러한 적응 전략이 훨씬 더 복잡한 모습으로 진행된다.

이 점을 가족구조와 삶의 연속 또는 단절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은 그 변화의 방향이 ‘서구화’인가 ‘전통의 고수’인가 하는 이분법을 전제로 한다. 이 글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고 결론을 내리기에 이르지만, 백이 제시한 “세계가족” 논의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시대에 국경을 넘는 이주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삶의 양식이 된 세계가족은 국가, 종교, 인종, 문화의 경계를 넘어 감정적 물질적 교류를 나누는 초국적 가족이다. 세계가족의 생존전략은 ‘가족이 곧 회사’라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가족과 친족 네트워크에 대한 의무가 국가(출신국과 수용국을 막론하고)에 대한 의무에 앞선다. 그러므로 지구화와 세계가족의 시대에 국가와 가족 중 최종 승자는 가족이며, 그런 세계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삶은 일국주의를 넘어서는 혼종성을 특징으로 할 수밖에 없다.⁴⁹⁾

본 연구는 새로이 사회 하층부로 편입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족을 ‘탈프롤레타리아화’한 기존의 독일 노동자 가족을 대신하는 ‘새로운 노동자 가족’으로 자리매김 해 보려는 시도였다. 전통적 의미의 ‘노동자’는 1950년대 경제 부흥 시기에 물질적 삶의 상향평준화를 통해 ‘프롤레타리아성’을 거의 탈각시켰다. 그러나 계층 문제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현대 사회의 계층 문제는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 유형에서도 과거의 부르주아 가족 대 노동자 가족의 구도는 이제는 역사적 유물이 되었고, 그 대신 전통적 가족(가정주부인 어머니가 둘 이상의 자녀에게 헌신하는)과 다양한 가족적 삶(싱글, 무자녀, 한부모 등)으로의 양극화 경향이 관찰된다. 가족 형태의 이러한 양극화는 사회 계층의 양극화와도 관련이 깊다. 굳이 말하자면 전자는 중산층의 삶이며 후자는 신 빈곤층의 삶이다.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 이른바 ‘정상 가족’을 꾸리고 아이를 여럿 낳는 것은 그만큼 경제력이 받쳐주어야 하는 중상층 계급의 ‘사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터키 이주민 가족은 새로운 하층계급 이면서도 결혼과 출산관행에서는 중상층의 ‘전통 가족’을 고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를 그들의 문화와 종교적 배경으로 돌리는 것은 손쉬운 설명이다. 산업화 시기 하층계급의 높은 출산율을 줄곧 불안 섞인 엄격한 시선으로 바라보아 온 서구사회 특유의 역사적 경험도 한몫한다는 생각이다.

49) 울리히 벡/엘리자베트 벡-게른스하임, 『장거리 사랑』, 이재원/홍찬숙 옮김, 새물결, 2013, pp.242, 131 참조.

• 참고문헌

<자료>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Familien ausländischer Herkunft in Deutschland. Sechster Familienbericht*, Berlin, 2000.

Ministerium für Arbeit, Gesundheit und Soziales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ed., *Landessozialbericht. Ausländerinnen und Ausländer in Nordrhein-Westfalen. Die Lebenslage der Menschen aus den ehemaligen Anwerbeländern und die Handlungsmöglichkeiten der Politik*, Neuss, 1994, p.116.

Ministerium fü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ed, *Frauen in NRW. Berufliche Situation und Existenzsicherung. Dokumente und Berichte 29*, Düsseldorf, 1994, p.27ff.

Statistik der Kohlenwirtschaft, *Der Kohlenbergbau in der Energiewirtschaf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ssen/Köln, 1973, 1980, 1987.

Statistische Bundesamt, *Bevölkerung und Erwerbstätigkeit. Bevölkerung mit Migrationshintergrund - Ergebnisse der Mikrozensus 2005 (Fachserie 1 Reihe 2.2 Migration in Deutschland)*, Wiesbaden, 2009.

<연구논저>

기든스, A. 저, 장정수 역, 『선진 사회의 계층구조』, 종로서적, 1982.

백, 올리히 저, 홍성태 역, 『위협사회』, 새물결, 2006.

백, 올리히/엘리자베트 백-게른스하임 저 이재원/홍찬숙 역, 『장거리 사랑』, 새물결, 2013.

- 이용일, 「파편적·일국사적 이민연구에서 통합적·초국가적 이민연구로 - 독일 이민사 연구노트」, 『서양사론』, 93, 2007.
- Bade, Klaus J., *Vom Auswanderungsland zum Einwanderungsland? Deutschland 1880-1980*, Berlin: Colloquium-Verl., 1983.
- Braßel, Frank/Michael Clarke/Ralf Piorr, “‘Zog in die Ferne, ins Paradies, und das liegt irgendwo bei Herne.’ - Migration und Stadtgeschichte”, Ralf Piorr, ed., *Eine Reise ins Unbekannte. Ein Lebebuch zur Migrationsgeschichte in Herne und Wanne-Eickel*, Essen: Klartext, 1998, pp.248-259.
- Erichsen, R., “Zurückkehren oder bleiben? Zur wirtschaftlichen Situation von Ausländern in der Bundesrepublik”,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vol. 24, 1988.
- Frey, M., “Aus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Ein statistischer Überblick”, *Parlament*, 1982년 6월 26일.
- Hareven, Tamara, *Family Time and Industrial Time*,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2.
- Herbert, Ulrich, *Geschichte der Ausländerpolitik in Deutschland. Saisonarbeiter, Zwangsarbeiter, Gastarbeiter, Flüchtlinge*, München: Beck, 2001.
- Holtbrügge, Heiner, *Türkische Familien in der Bundesrepublik. Erziehungsvorstellungen und familiale Rollen- und Autoritätsstruktur*, Duisburg: Sozialwiss. Kooperative, 1975.
- Kolinsky, Eva, “Non-German Minority in German Society”, David Horrocks/Eva Kolinsky, eds., *Turkish culture in german society today*, Oxford: Berghahn, 1996, pp.71-111.
- Lederer, Harald W. 외, eds., *Migrationsbericht 1999. Zu- und Abwanderung nach und aus Deutschland. Im Auftrag der Bundesregierung für Ausländerfragen*, Bonn: Bonner Univeritätsdruckerei bub, 1999.

- Marschalck, Peter, *Bevölkerungsgeschichte Deutschlands im 19. Und 20. Jahrhundert*, Frankfurt/M: Suhrkamp, 1984.
- Mertens, G./Ü. Akpınar, *Türkische Migrantenfamilien: Familienstrukturen in der Türkei und in der Bundesrepublik; Angleichungsprobleme türkischer Arbeiterfamilien: Beispiel West-Berlin., Materialien zum Projektbereich "Ausländische Arbeiter" der AGG, Sonderheft Nr. 2*, Bonn, 1977.
- Motte, Jan Motte/Rainer Ohlinger/Anne von Oswald, eds., *50 Jahre Bundesrepublik - 50 Jahre Einwanderung. Nachkriegsgeschichte als Migrationsgeschichte*, Frankfurt/M: Campus, 1991.
- Motte, Jan/Bernhard Santel, "Einwanderung aus der Türkei in die Bundesrepublik von 1961 bis heute. Vom kulturalisierenden Blick auf die Allzufremden", *Sozialwissenschaftliche Informationen*, vol. 30, 2001, pp.22-32.
- Münz, Rainer 외, eds., *Zuwanderung nach Deutschland. Strukturen, Wirkungen, Perspektiven*, Frankfurt/M: Campus, 1999.
- Nauck, Bernhard, *Arbeitsmigration und Familienstruktur: eine Analyse der mikrosozialen Folgen von Migrationprozessen*, Frankfurt/M: Campus, 1985.
- Nauck, Bernhard/Annette Kohlmann/Heike Diefenbach, "Familiäre Netzwerke, intergenerative Transmission und Assimilationsprozesse bei türkischen Migrantenfamilien", *Kölner Zeitschrift für Soziologie und Sozialpsychologie*, vol. 49, no. 3, 1997, pp.477-499.
- Özcan, Ertekin, "Die türkische Minderheit", Cornelia Schmalz-Jakobsen/Georg Hansen, eds., *Ethnische Minderheit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in Lexikon*, München: Beck, 1995, pp.511-528.
- Petzina, Dietmar, "Die Bedeutung der Migration am Beispiel des Ruhrgebietes", Rainer Münz/Hermann Korte/Gert Wagner, ed., 28.

- Arbeitstagung der Deutschen Gesellschaft für Bevölkerungswissenschaft 16.-18.2.1994 in Bochum; Tagungsband*, Bochum, 1994, pp.96-106.
- Rothammer, Peter 외, *Integration ausländischer Arbeitnehmer und ihrer Familien im Städtevergleich. Probleme, Maßnahmen, Steuerungsinstrumente*, Berlin: Dt. Inst. für Urbanistik, 1974.
- Schubnell, Herman, *Der Geburtenrückga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 Entwicklung der Erwerbstätigkeit von Frauen und Müttern. Schriftenreihe des Bundesministers für Jugend, Familie und Gesundheit, Vol. 6*, Stuttgart: Kohlhammer, 1973.
- Sen, Faruk/Andreas Goldberg, *Türken in Deutschland: Leben zwischen zwei Kulturen*, München: Beck, 1994.
- Steinert, Johannes-Dieter, *Migration und Politik. Westdeutschland - Europa - Übersee 1945-1961*, Osnabrück: Secolo-Verlag, 1995.
- Straußburger, Gaby, “Das Heiratsverhalten von Personen ausländischer Nationalität oder Herkunft in Deutschland”, Sachverständigenkommission 6. Familienbericht, ed., *Familien ausländischer Herkunft in Deutschland: Empirische Beiträge zur Familienentwicklung und Akkulturation. Materialien zum 6. Familienbericht*, vol. 1, Opladen, 2000, pp.9-48.
- Ücüncü, Sadi, *Die Ausländerbeschäftigung und die sozio-ökonomische Situation der türkischen Frau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Frankfurt/M: Fischer, 1980.
- Zentrum für Türkeistudien, *Aus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in Handbuch*, Opladen; Leske+Budrich, 1994.

**Families with Migrant Background:
A Historical Study on
the “Turkish Families” in Germany from
the 1970s to the 1990s**

Jung, Yong-Suk*

This study deals with the immigrant families in Germany. Since the 1970s, families of foreign origins have represented a not-insignificant force in reproductive behavioral changes in West Germany. The Sixth Family Report (2000) defined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s a de facto modern country of immigration from a social and cultural perspective. The report focused especially on families of Turkish origin because of their large number and their uniqueness. They were known to preserve traditional ideas about the community life, gender roles, and specific ethnic or religious orientation, passing them onto their children. There are strict customs among this cultural minority, especially directed at Turkish women. In a migrant family, the order of migration influences a balance of power among family members – especially between spouses. A large proportion of Turkish women came to Germany first in order to marry and had problems in terms of adaptation. This is due not only to their traditional values or the lack of language skills, but also to their isolated way of life in the so-called “Turkey town,” where there is limited opportunity for interaction with the neighboring

* Assistant Professor, Daegu University

German society. These women have fixed roles as housewives with a large number of children. The employment rate of Turkish women as a whole in the Federal Republic was very low. Young Turkish women are grossly under-represented in the apprenticeship market. By the early 1990s, this ratio had “normalized,” but a mismatch still existed.

Key words: Gastarbeiter, migration, family, women,
parallel society

필자 E-Mail: yongsuk.jung@gmail.com

투고일: 2015년 7월 21일 / 심사완료일: 2015년 8월 5일 / 게재확정일: 2015년 8월 6일